

청년들의 시간결핍,
누가 얼마나 경험하는가?

김진욱, 박수빈
서강대학교, 인천연구원

청년들의 시간결핍, 누가 얼마나 경험하는가?*

김진욱**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박수빈***

인천연구원 초빙연구원

주제분류 사회복지학

주제어 시간결핍, 시간빈곤, 청년, 생활시간조사

요약문 본 연구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시간결핍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19~34세 미혼 청년들의 시간결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시간결핍의 하위 차원으로 수면, 개인관리, 여가시간을 설정하였고, 결핍의 기준은 표본 중위값의 75%와 90%로 하였다. 종속변수의 분포에서 좌측절단의 문제가 나타나므로 토빗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청년의 시간결핍 정도가 더 심각하게 나타났고, 유급노동, 무급노동, 학습 등 다른 필수적 활동에 대한 시간부담이 클 때 청년들의 시간결핍 정도가 커졌다. 삶의 만족, 시간부족감 등 생활관련 인식 변수들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의 경우 가구주 관련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의 시간결핍을 완화해줄 수 있는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해주는 것이다.

I. 서론

지난 몇 년간 청년세대는 한국 사회에 공정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정권교체를 불러온 조국사태, 대선 기간을 거치며 불거진 젠더 갈등, BTS의 병역혜택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학입시의 수시 공정성과 정시확대 논의 등에서 그러하였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는 노동시장과 고용의 문제가 있다. 청년들이 안정된 공공부문의 일자리나 임금인상을 지속하는 대기업 정규직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입시에서 경험

* 이 논문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sspjwk@sogang.ac.kr),

*** 공동저자

했던 것 이상의 경쟁을 겪으며 고달픈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나마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청년들은 오롯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지만, 부모의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다수의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나 비정규(플랫폼)노동을 병행하며 취업 준비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취업 준비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할뿐더러 삶의 질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가시간조차 활용할 여력이 없다. 일-생활 균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청년세대에게 이러한 상황은 건디기 어려운 삶의 질 저하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활달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삶의 밑바탕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에 부딪히는 문제들은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청년은 한국 사회의 미래로, 청년들이 바로 서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청년들의 생활시간을 살펴보아야 할 이유이다.

본 연구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시간결핍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흔히 결핍은 물질적 차원의 빈곤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고, 주로 가구의 소득을 설정된 빈곤선과 비교함으로써 실증연구가 진행된다. 그러나 시간의 결핍은 빈곤 연구와는 매우 상이하다. 시간은 희소하지만 누구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는 평등한 재화이므로, 시간의 부족은 물리적인 시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생활시간을 분배하는 방식에 기인한다. 개인이 필요한 일과 행동을 모두 수행하기에 24시간이 부족한 시간압박의 상태에 있을 때 시간의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다. 청년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학점관리와 어학점수 등 학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자기계발, 스펙관리, 면접준비, 그룹스터디 등 다양한 활동을 요구받는다. 동시에 생활비와 용돈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상황에 따라 일을 병행해야 한다. 야간이나 주말 동안 생계를 위한 일을 해야 한다면, 청년들은 수면과 같은 필수적인 개인유지 시간을 줄이거나 여가시간을 희생해야 한다.

지금까지 시간결핍(빈곤) 연구는 크게 세 갈래로 수행되어 왔다. 먼저 전통적인 노동-여가의 함수관계를 기초로 과도한 노동시간이나 여가시간의 부족 자체를 시간빈곤으로 간주하는 흐름으로, 청년들의 여가 및 교제시간에 대한 분석이나(송혜림 외, 2018; 정은희·주은선, 2020; 이수현, 2022), 이중노동부담 가설에 기초하여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노동시간 배분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Hochschild, 1989; Bittman, 2004; Bittman and Wajcman, 2000; Bardasi and Wodon, 2006; 손문금, 2003; 김진옥, 2008). 둘째, 실제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현상보다는, 실제 시간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비판이 대두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간배분에 대한 통제와 자율성 개념에 기초한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이 제안되었고, 이를 통하여 시간빈곤에 접근하는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Goodin et al., 2005, 2008; Burchardt, 2008; 노혜진, 2013). 셋째, 시간빈곤이나 결핍 자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연구들로, 시간빈곤을 다양하게 개념화하여 측정에 반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연구들이다(김진옥·고은주, 2015; 노혜진, 2019). 그러나, 청년에 대한 시간 연구 자체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빈곤이나 결핍의 개념을 청년세대에 적용한 연구는 국내에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청년세대의 특징과 생활세계, 시간빈곤(결

핍)의 개념 및 영향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연구방법에서는 분석자료와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2019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며, 분석방법은 시간자료의 특성상 좌측절단(left-censoring)이 예상되어 Tobit 분석을 진행한다. 연구결과에서는 개인유지, 일, 학습, 여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들의 생활세계를 개관한 다음, 시간결핍을 수면 시간, 개인유지시간, 여가시간의 결핍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마지막 결론은 연구결과의 학술적 의의와 청년정책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청년세대의 특징과 생활세계

본 연구는 미혼 청년의 시간결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석의 대상인 청년과 청년세대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자란 젊은 사람(한국어기초사전)을 뜻하며,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의 범위는 국가와 법, 시기나 사회인식과 문화 등에 따라서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박수빈, 2022). 우리나라의 청년 정의도 정책영역별로 상이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청년기는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으로 생애주기 중 가장 잦은 역할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로, 역할 변동에 따른 불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저성장, 고용불안정, 근로조건 악화 등의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청년들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와 열의가 싹터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크고, 삶의 질적 저하를 느끼고 있다(정은희 외, 2020). MZ세대라고도 불리는 청년세대들은 이전세대에 비해 개인주의 성향을 띄고, 기존의 노동 편향적인 삶의 양식에서 탈피하여 자기 개성과 멋을 중시하는 소비행태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여가 지향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김문겸, 2008; 우민희 외, 2015). 또한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그에 따른 자아실현 욕구가 증가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결혼 비용 증가, 그리고 적절한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증가 등으로 인해 비혼과 만혼 현상이 가속화되었으며(이진숙 외, 2014; 박수빈, 2022), 소득이 안정된 상황에서 자유로이 혼자 사는 삶을 즐기고자 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가치관 추구는 청년 1인가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청년세대 사이에서 부상하는 문제는 공정성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교육, 결혼, 노동시장 등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져 왔으나, 실상은 부모의 배경이나 연줄에 따라 생애과정에서 능력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결정되는 일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현재의 사회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이희조 외, 2022).

또한 청년세대를 둘러싼 사회구조적 환경은 청년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

하다. 그간 청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주로 고용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이유는 청년기에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잡게 되면 결혼과 출산으로의 생애주기 이행이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변금선 외, 2019). 그러나 저성장·고실업의 사회에 더하여 이제는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마저도 어려워짐에 따라, 가뜩이나 높았던 취업 문턱이 더 높아져 취업을 위한 학업과 준비에 투자해야 할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모에게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다수의 청년들은 취업을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여가와 문화 생활을 영위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용관(2016)의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의 노동시간은 2004년 85분, 2009년 92분, 2014년 101분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김유빈 외(2018)의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여가보다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 기준 전체 청년층 중 36.3%만이 원하는 만큼의 여가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시간빈곤 및 시간결핍의 개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24시간 주어지는 시간에 대해 빈곤이나 결핍을 논의하는 맥락은 물리적인 시간의 부재가 아닌, 생활시간을 분배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시간빈곤(time poverty)은 개인이 해야 하는 일과 행동을 전부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문제에서 출발하였다(Vickery, 1977; 김진옥 외, 2015에서 재인용). Vickery(1977)는 수면과 식사, 개인 유지 등의 필수유지 시간(necessary time)과 유급노동 시간을 차감하고 남은 시간, 즉 가구 유지를 위한 가사, 돌봄 등의 헌신시간(committed time)이 일정한 기준선(전업주부의 가사시간) 이하인 경우로 시간빈곤을 정의하였다(신영민, 2021에서 재인용).

그런데, 실제 생활세계에서 시간빈곤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예를 들어 저소득 노동자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더 벌어들이기 위해 유급노동시간을 크게 증가시킨다면, 수면을 비롯한 필수적인 개인유지시간이나 여가, 혹은 가족을 돌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간빈곤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시간빈곤과 소득빈곤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반면, 시간당 임금이 매우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소득 극대화를 위해 개인시간과 여가시간을 최소화하는 것도 흔히 관찰된다. 이런 경우라면 시간의 빈곤은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결국, 경제적 빈곤과 시간빈곤은 개인에 따라 서로 연관되어 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에는 시간빈곤이라는 개념을 대신하여 개인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통제권을 의미하는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 개념이 제안되기도 하였다(Goodin et al., 2005, 2008). 재량시간은 개인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노동(유급 및 무급)시간과 개인유지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정의된다. 임금이 낮은 사람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노동시간이 길어 재량시간이 적지만 고소득자는 반대이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이 시간빈곤을 호소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지 시간에 대한 통제력(재량시간)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재량시간이나 시간빈곤을 측정할 때의 기준이다. 시간은 소득처럼 계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기에 빈곤의 개념을 적용하여 결핍과 불평등을 분석할 수 있다(노혜진 외, 2022). 시간빈곤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노동과 여가시간의 부적 함수관계에 의존하는데, 절대적인 빈곤선을 설정하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시간빈곤 연구자들은 소득의 상대적 빈곤 개념을 차용하여 중위값의 일정 비율로 시간빈곤선을 설정해 왔다. Bardasi와 Wordon(2006)은 노동시간 중위수의 1.5~2배를 시간빈곤선으로 정의하였으며, Bittman(2004)은 자유시간 중위값의 50%를 기준으로 하였다. 영국의 사회정책학자 부차드는 소득의 빈곤과 시간빈곤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에 주목하면서, 재량시간 측정의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선 개념을 차용하였다(Burchardt, 2008). 그러나 시간은 소득과 달리 모든 사람이 24시간을 갖게 되므로 행위별 시간의 변이는 소득보다 훨씬 작게 나타난다. 따라서 부차드는 재량시간 계산에도 중위값의 일정비율을 사용하지만, 개인유지는 중위값의 80%를, 여가시간은 60% 기준을 사용하였다. 노혜진(2013)의 경우에도 재량시간 계산에 유급노동은 중위값의 60%, 무급노동은 50%, 개인유지시간은 80% 기준을 사용하였다.

3. 청년들의 시간결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하루 중 시간을 나누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과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는 다양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이정희 외, 2018). 개인의 일상엔 일, 가족, 여가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끊임없는 이해관계를 이루며 주어진 24시간 안에서 서로 비중을 차지하려 들기 때문이다(차승은, 2010). 초창기 집단별 시간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시간연구의 사례와 자료들이 축적되면서 여성들의 시간 사용 불평등 문제가 드러났고, 이러한 성별 차이 외에도 학력, 소득 수준 등의 다른 요인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노혜진 외, 2022). 시간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계층, 젠더, 고용, 가구 유형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제시되어 왔다. 국내 청년들의 시간결핍과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계층과 관련된 연구이다. 김서현(2019)은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저소득층 여자 대학생들의 시간 체험을 살펴본 결과 학업과 노동이 경계 없이 교차하여 쉴 틈 없는 일주일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평범한 대학생활동을 즐기는 학우들을 볼 때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배상훈 외(2015)의 연구에서는 고소득층 학생일수록 학습과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교내외 근로활동 시간이 많은 것을 확인하여 소득수준이 대학생의 학습과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용관(2016)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대학생 자녀의 시간사용 행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계층 의식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영민(2021)은 전문직, 중상류층과 저소득층이 동일하게 시간빈곤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업무시간과 자유시간을 구성하는데 자율성과 선택권에서 질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는 상류층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시간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경제적 자유로 노동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반면, 빈곤층은 생계를 위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함에 따라 자신의 삶을 계획적,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빈곤 연구에서 대체로 남성은 유급노동에서, 여성은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이중부담에서 시간빈곤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혜은(2017)의 연구에서 남성은 유급노동에서 여성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유급노동 외에 가사와 같은 무급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함께 필수시간은 남성보다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 1인가구의 성별 생활시간 사용 구조와 주관적 시간빈곤을 부부가구와 비교하여 본 서지원 외(2017)의 연구에서는 청년 1인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교제 및 여가활동에 더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은 시장노동과 더 많은 가사노동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차승은(2010)은 2004년 생활시간자료를 통하여 남녀의 시간압박을 비교 검토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활용과 연관되는데, 남성의 경우 임금노동시간, 이동시간, 여가시간이 시간압박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임금노동시간, 이동시간, 여가시간을 비롯하여 돌봄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전화통화시간까지 시간압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압박에 관한 김진욱 외(2015)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있어서 자녀의 유형이 큰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남성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시간빈곤에서 젠더(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과 관련해서 이경희 외(2018)의 연구에서는 취업여부가 시간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한 주당 자유시간은 44.7시간, 비취업자는 80.1시간으로 나타나 2배 정도의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취업자 중에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시간빈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승은(2010)의 연구에서도 취업남성과 취업여성이 다른 비취업자 그룹에 비해 가용시간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의 2019년 생활조사자료이다. 1999년부터 5년간격으로 시행되고 있는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이 하루 24시간을 무엇을 누구와 함께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자료원으로, 조사대상 개인마다 2일간 시간일지(diary)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되고 있다. 시간일지 방식은 설문조사 방식에 비해 조사는 까다롭지만 시간사용에 대한 더 정확하고 자세한 자료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제5차 조사가 이루어진 2019년에는 12,435개 표본가구의 10세 이상 개인 약 2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

용하는 표본은 만 19세~34세의 미혼 청년층이 평일에 작성한 시간일지이다. 한 개인의 생활시간은 평일과 주말이 매우 다른 양상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유급노동이나 학습이 집중되는 평일 일과가 더 규칙적이고 시간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시간연구에서는 보통 평일 자료를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청년층에 해당하는 미혼 응답자의 평일 시간일지 총 3,951개를 추출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총 3,951개의 표본 중 남성 1,988명, 여성 1,963명으로 거의 비슷한 성별분포를 보였고, 혼자 거주하는 1인가구 청년이 표본의 약 19%에 해당하는 742명,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이 2,668명으로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연령분포는 19-24세가 48%로 가장 많았고 30-34세가 17%로 가장 적었는데, 이는 미혼자만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연령이 높을수록 표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부모동거 청년에서 19-24세 청년 비율이 50%를 넘는 반면, 1인가구에서 차지하는 30-34세 청년의 비중은 2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의 경우 대학 졸업자나 재학 중인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개인소득 분포는 월 200만원 미만이 전체 표본의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관련 인식과 관련된 문항의 응답 분포를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3%를 차지하였고 남성(60%)보다는 여성(66%)의 시간부족 인식 비율이 더 높았다. 삶의 만족은 전체 응답자의 3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청년의 성별이나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여가만족도의 경우 전체의 36% 미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의 만족 응답률(37%)이 여성 청년(35%)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개인특성 구분 및 범주		전체(N=3,951)		남(N=1,988)		여(N=1,963)		1인가구 청년(N=742)		부모동거 청년(N=2,668)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령	19-24세	1,882	47.6	869	43.7	1,013	51.6	272	36.7	1,349	50.6
	25-29세	1,388	35.1	711	35.8	677	34.5	274	38.3	918	34.4
	30-34세	681	17.2	408	20.5	273	13.9	186	25.1	401	15.0
학력	고졸 이하	576	14.6	361	18.2	215	11.0	97	13.1	374	14.0
	대졸 이하	3,240	82.0	1,567	78.8	1,673	85.2	605	81.5	2,218	83.1
	대학원 이상	135	3.4	60	3.0	75	3.8	40	5.4	76	2.9
소득	200만원 미만	2,803	70.9	1,348	67.8	1,455	74.1	413	55.7	2,013	75.5
	200~400 미만	1,098	27.8	607	30.5	491	25.0	316	42.6	627	23.5
	400만원 이상	50	1.3	33	1.7	17	0.9	13	1.8	28	1.1
시간	시간 여유	1,459	36.8	797	40.1	662	33.7	247	33.3	1,008	37.8
부족감	시간 부족	2,492	63.1	1,191	59.9	1,301	66.3	495	66.7	1,660	62.2

1) 나머지 541명은 다른 유형의 혈연, 비혈연 동거가구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34세 이하 청년들의 1인가구 비율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상의 1인가구 비율(30%)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생활시간조사의 표집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는 이러한 차이는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개인특성 구분 및 범주		전체(N=3,951)		남(N=1,988)		여(N=1,963)		1인가구 청년(N=742)		부모동거 청년(N=2,668)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삶의 만족도	불만족	710	18.0	349	17.6	361	18.4	120	16.2	483	18.1
	보통	1,731	43.8	883	44.4	848	43.2	329	44.3	1,171	43.9
	만족	1,510	38.2	756	38.0	754	38.4	293	39.5	1,014	38.0
여가 만족도	불만족	927	23.5	441	22.2	486	24.8	174	23.5	630	23.6
	보통	1,614	40.9	816	41.1	798	40.7	288	38.8	1,086	40.7
	만족	1,410	35.7	731	36.8	679	34.6	280	37.7	952	35.7

출처: 통계청, 201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연구자 직접 분석

2. 변수의 측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년들의 시간압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종속변수인 시간압박은 ‘개인의 신체를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필수적인 시간과 심신의 재충전에 요구되는 여가시간이 결핍된 상태’ (김진욱·고은주, 2015: 144)로 정의되며, 이를 구성하는 세 하위변수로 수면시간의 결핍, 개인유지시간(식사, 씻기 등)의 결핍, 여가시간의 결핍을 설정한다. 이러한 종속변수 측정의 핵심은 시간결핍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있다. 흔히 시간결핍은 시간의 빈곤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빈곤연구와 마찬가지로 표본의 중위수를 구하고 여기에 일정 비율을 결핍 시점으로 정의하는 상대적 기준을 사용한다. 다만, 소득의 편차가 이론적으로 무한대에 가깝지만, 시간은 누구나 24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생활시간의 변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소득의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의 50%나 60%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중위 수면시간이 8시간이라 할 때 수면시간 결핍 기준을 중위 값의 50%인 4시간으로 설정할 수 없다. 하루 4시간 미만을 자는 사람은 극소수이므로 수면시간 결핍여부의 변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행연구들은 중위값의 80%를 기준으로 하거나(Burchardt et. al., 2005), 중위값에서 1표준편차 낮은 기준을 쓰기도 하였다(Goodin et. al, 2008).

〈표 2〉 시간결핍의 기준 설정: 성별, 범주별 기술통계치

(단위: 분)

구분		수면(a)			개인관리(b)			여가(c)			합계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청년 (n=3,951)	평균	486.9	486.2	487.7	93.0	82.8	103.3	195.1	219.2	170.6	774.9	788.2	761.6
	중위값	480	480	480	90	80	100	160	190	140	740	750	730
	표준편차	1.7	2.4	2.4	0.7	0.8	1.0	2.3	3.5	3.0	3.0	4.4	4.0
	중위값*0.90	432	432	432	81	72	90	144	171	126	666	675	657
	중위값*0.75	360	360	360	67.5	60	75	120	142.5	105	555	562.5	547.5

구분		수면(a)			개인관리(b)			여가(c)			합계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인가구 청년 (n=742)	평균	476.3	472.1	481.2	94.4	85.4	104.9	164.3	184.0	141.5	735.0	741.5	727.5
	중위값	470	460	480	90	80	100	150	170	120	710	720	700
	표준편차	3.8	5.3	5.4	1.6	2.1	2.2	4.4	6.1	6.2	5.9	8.3	8.2
	중위값*0.90	423	414	432	81	72	90	135	153	108	639	648	630
	중위값*0.75	352.5	345	360	67.5	60	75	112.5	127.5	90	532.5	540	525
부모동거 청년 (n=2,668)	평균	490.1	490.8	489.5	93.0	81.9	103.9	203.4	231.1	176.3	786.6	803.8	769.7
	중위값	480	480	480	90	80	100	170	200	150	750	760	730
	표준편차	2.1	3.0	2.9	0.8	1.0	1.2	3.0	4.5	3.8	3.7	5.6	4.9
	중위값*0.90	432	432	432	81	72	90	153	180	135	675	684	657
	중위값*0.75	360	360	360	67.5	60	75	127.5	150	112.5	562.5	570	547.5

출처: 통계청, 201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연구자 직접 분석

본 연구는 김진욱과 고은주(2015)의 연구가 제안한 것처럼, 과학적 기준의 적정수면시간과 최소수면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결핍의 상대적 기준선을 설정하고자 한다. 수면시간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은 미국수면재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김숙영(2018)은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7-8시간을 ‘적정 수면시간’으로, 6시간 이하는 수면부족으로 보고 ‘짧은 수면시간’으로 정의하였으며, 김진아와 이심열(2019)은 6-10시간을 ‘적정수면’으로, 6시간 미만을 ‘수면부족’으로 정의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도 미국수면재단이 수면시간 연구들을 종합하여 성인기 최소수면시간을 6시간, 적정수면시간을 7-9시간으로 권고한 것을 기준으로(National Sleep Foundation, 2015) 설정한 다음, 본 연구의 표본 중위값을 비교하여 각 시간결핍 하위변수의 기준선을 정하는 것이다. 다음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미혼 청년 전체 표본에서 나타난 평일 수면시간의 중위값은 487분이다. 이 중위값의 75%로 최소수면시간 기준은 6시간이 된다. 중위값의 90%를 적용하면 432분으로 적정수면시간의 하단인 7시간에 근접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간결핍 기준으로 표본 중위값의 75%와 90%로 설정하고, 여기에 미달하는 시간(분)을 시간결핍정도로 설정하기로 한다. 기준 설정의 자의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단일한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최소 기준과 적정 기준 두 가지를 사용하려는 것이다. 단, 수면시간의 경우 과학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6시간과 7시간 기준으로 그대로 사용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개인관리, 여가, 그리고 수면까지 합한 필수시간의 상대적 시간결핍 기준은 <표 2>의 음영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청년에 대한 개인관리시간 결핍 기준은 중위값 90%, 75% 기준으로 각각 81분, 67.5분이 된다.

〈표 3〉 Tobit 분석을 위한 변수의 측정

모델			전체		2. 가구유형	
변수 및 측정			중위수 90%	중위수 75%	1인가구 청년	부모동거 청년
종속변수	수면시간 결핍 정도		7시간-수면시간	6시간-수면시간	좌동	좌동
	개인관리시간 결핍 정도		중위수 90%- 사용시간	중위수 75%- 사용시간		
	여가시간 결핍 정도					
	시간압박 정도					
독립변수	개인특성	성별	남=1, 여=0			
		연령	19-24세=1, 25-29세=2, 30-34세=3			
		가구유형	1인가구=1, 2인이상=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1, 대학(교) 졸업 이하=2, 대학원 이상=3			
		소득	200만원 미만=1, 200~400만원 미만=2, 400만원 이상=3			
	노동시간	유급노동	유급노동시간(분)			
		무급노동	무급노동시간(분)			
	생활 관련 인식	시간부족감	여유=0, 부족=1			
		삶만족도	불만족=1, 보통=2, 만족=3			
		여가만족도	불만족=1, 보통=2, 만족=3			
	가구특성	가구주 성별				남=1, 여=0
		가구주 연령				연속 변수 (10년 단위)
		가구주 교육수준				고졸 이하=1, 대졸 이하=2, 대학원 이상=3
		가구규모(가구원수)				연속 변수
		가구소득				연속 변수 (100만원 단위)
		가구주 개인소득				100만원 미만=1, 100-200만원 미만=2 200-300만원 미만=3 300만원 이상=4

미혼 청년들의 시간결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모델의 종속변수는 시간 결핍의 정도이다. 앞서 설명한 시간결핍 기준에서 각 사례가 실제 사용한 시간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된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수면시간 결핍은 7시간 및 6시간이라는 기준에서 실제 수면시간을 뺀 값이 된다. 개인관리시간, 여가시간, 그리고 수면까지 포함한 시간압박의 정도는 중위수의 90%와 75%에서 실제 사용시간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만약 시간압박을 받지 않는 청년이라면 각 하위 종속변수의 시간결핍 정도는 음(-)의 값을 갖게 되는데, 현실세계에서 음(-)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값은 0으로 코딩된다. 응답의 다수가 0인 경우 시간형태의 분포는 정규분포가 아닌 좌측 중도절단의 비선형분포를 띄게 되므로, 제한된 범위의 종속변수를 추정하

는데 적합한 방법인 토빗회귀모형을 사용한다. 즉, 종속변수의 절단(censuring)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시간압박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이 다수이므로 표본 내 종속변수의 절단은 매우 흔하게 관찰된다. 이처럼 종속변수의 절단 문제가 심각한 경우 종속변수의 정규분포 가정이 성립되지 않아 회귀계수의 추정에 상당한 오류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OLS회귀분석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종속변수의 절단을 고려한 토빗(Tobit) 회귀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토빗 회귀모형 분석에서는 중위수 90%와 75% 두 기준의 종속변수 추정모형을 함께 제시하고, 전체 청년, 1인가구 청년, 부모동거 청년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한다. 전체 청년 모형에서는 가구유형 변수가 투입되며, 부모동거 청년의 경우 가구주 요인에 해당하는 독립변수가 함께 고려된다. 세 분석 모형 모두에 공통으로 투입되는 독립변수는 개인특성(성별, 연령, 학력, 개인소득), 노동시간(유급노동 및 무급노동시간), 생활관련인식(시간부족감, 삶의 만족도, 여가만족도)들이다. 구체적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측정 관련 사항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IV. 연구결과

1. 청년들의 시간결핍 현황

청년들의 시간결핍에 대한 분석에 앞서 <표 4>는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활세계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9년 19~34세 미혼 청년들의 평일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 6분이었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1999년에 비해 30분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년간 청년들의 수면시간이 점차 증가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식사 관련 시간과 개인위생 등 전반적인 개인유지시간이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돌봄에 대한 부담이 적은 미혼 청년 특성상 가족 관련 시간은 많지 않다. 2019년 기준 미혼 청년의 가족 관련 시간은 하루 평균 37분으로 남성(25분)에 비해 여성(49분)의 시간이 더 많았다.

반면 유급노동과 학습 등 일 관련 시간은 지난 20년간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9년 미혼 청년들의 하루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3시간 39분으로 1999년에 비하여 30분 이상 감소되었고, 남성 청년보다는 여성 청년의 노동시간이 조금 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시간의 경우에도 하루 평균 2시간 정도로 남녀가 비슷하나, 1999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가시간의 경우 미디어를 이용한 수동적 여가활동은 상당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스마트폰의 사용 확산에 따라 게임 및 기타 유사한 활동을 통한 여가시간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게임 등의 시간은 2019년 기준 남성이 하루 평균 1시간 31분, 여성이 38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사용의 성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활동영역이었다.

〈표 4〉 청년들의 생활세계: 개인유지, 일, 가족, 여가시간의 경향 분석

(단위: 시간:분)

구분		전체			남성			여성		
		1999	2009	2019	1999	2009	2019	1999	2009	2019
개인 유지	수면	7:33	7:40	8:06	7:38	7:39	8:06	7:28	7:40	8:07
	식사 및 간식	1:28	1:39	1:45	1:29	1:39	1:46	1:28	1:39	1:43
	개인관리	1:03	1:24	1:32	0:51	1:14	1:22	1:18	1:34	1:43
일	유급노동	4:11	3:46	3:39	4:10	3:40	3:45	4:12	3:52	3:33
	학습	2:19	2:08	2:00	2:17	2:09	2:00	2:21	2:06	1:59
가족	가사 및 돌봄	0:32	0:29	0:37	0:18	0:19	0:25	0:47	0:40	0:49
	문화 및 관광활동	0:02	0:04	0:05	0:02	0:03	0:04	0:03	0:05	0:06
여가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2:17	1:54	1:40	2:23	1:55	1:34	2:10	1:53	1:46
	스포츠 및 레포츠	0:14	0:17	0:24	0:18	0:20	0:28	0:08	0:14	0:19
	게임 및 기타	0:41	0:55	1:05	0:56	1:21	1:31	0:24	0:27	0:38

출처: 통계청, 1999, 2009, 201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연구자 직접 분석

〈표 5〉 청년 가구유형별 시간결핍 비율과 격차: 중위값의 90% 기준(7시간 수면 기준)

(단위: %, 시간:분)

구분	전체 청년 n=3,951			1인가구 청년 n=742			부모동거 청년 n=2,668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시간결핍 경험자 수(비율)									
수면	824(20.9)	414(20.8)	410(20.9)	167(22.5)	96(24.1)	71(20.7)	542(20.3)	263(19.9)	279(20.7)
개인관리	1,831(46.3)	1,136(57.1)	695(35.4)	332(44.7)	216(54.1)	116(33.8)	1,240(46.5)	761(57.7)	479(35.5)
여가	1,748(44.2)	735(37.0)	1,013(51.6)	338(45.6)	149(37.3)	189(55.1)	1,229(46.1)	513(38.9)	716(53.1)
시간압박	1,151(29.1)	551(27.7)	600(30.6)	193(26.0)	97(24.3)	96(28.0)	815(30.6)	384(29.1)	631(32.0)
시간결핍 경험자의 평균 결핍 시간									
수면	1:01	0:59	1:03	1:06	1:04	1:08	0:59	0:58	1:00
개인관리	0:20	0:21	0:18	0:19	0:20	0:16	0:20	0:22	0:18
여가	1:08	1:05	1:11	1:08	1:03	1:11	1:12	1:08	1:16
시간압박	1:20	1:19	1:21	1:11	1:18	1:04	1:22	1:20	1:25

출처: 통계청, 201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연구자 직접 분석

이어서 <표 5>과 <표 6>은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 나타난 청년의 가구유형별 시간결핍 비율과 시간결핍 경험자의 평균 결핍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적정 수면시간 하단인 7시간 및 이를 다른 시간결핍 유형에 적용한 중위수 90% 기준을 적용할 때, 전체 청년 중 수면 결핍을 경험하는 청년의 비율은 20.9%인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결핍시간은 약 1시간 정도였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1인가구 및 부모동거 청년 모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인관리시간의 경우 전체의 46.3%가 상대적인 시간결핍을 경험하고 있었고, 평균 결핍시간은 20분 정도였다. 여성보다는 남성의 시간결핍 비율이 더 높았고 결핍경험자의 평균 결핍시간도 조금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가시간은 여성의 결핍비율이 51.6%로 남성에 비해 훨씬 더 높았다. 이 세 하위차원을 모

두 합한 전체적인 시간압박 경험자는 전체의 29%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간 더 비율이 높았다.

시간결핍의 기준을 수면 6시간 및 이와 동등한 수준(중위값의 75%)으로 보다 엄격히 적용할 경우, 수면시간 결핍 경험 비율은 전체의 6.7%로 감소하였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1인가구 청년의 경우 최소수면시간에 미달한 청년의 비율이 8.0%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6.3%)에 비해 더 높았다. 개인관리시간의 경우 시간결핍 경험자 비율은 24%였고, 여가시간은 33.2%였으며, 전체적인 시간압박을 경험한 비율은 7.5%였다. 남성의 개인관리시간 결핍비율이 더 높고, 여성의 여가시간결핍비율이 더 높은 경향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되었다.

〈표 6〉 청년 가구유형별 시간결핍 비율과 격차: 중위값의 75% 기준(6시간 수면 기준)

(단위: %, 시간분)

구분	전체 청년 n=3,951			1인가구 청년 n=742			부모동거 청년 n=2,668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시간결핍 경험자 수(비율)									
수면	265(6.7)	135(6.8)	130(6.6)	59(8.0)	34(8.5)	25(7.3)	169(6.3)	84(6.4)	85(6.3)
개인관리	949(24.0)	623(31.3)	326(16.6)	176(23.7)	124(31.1)	52(15.2)	636(23.8)	411(31.1)	225(16.7)
여가	1,313(33.2)	534(26.9)	779(39.7)	272(36.7)	117(29.3)	155(45.2)	970(36.4)	393(29.8)	577(42.8)
시간압박	298(7.5)	136(6.8)	162(8.3)	42(5.7)	23(5.8)	19(5.5)	227(8.5)	95(7.2)	132(9.8)
시간결핍 경험자의 평균 결핍 시간									
수면	1:01	0:56	1:06	1:02	1:01	1:04	1:01	0:57	1:05
개인관리	0:20	0:20	0:19	0:18	0:18	0:17	0:20	0:21	0:19
여가	1:02	1:00	1:04	0:59	0:55	1:02	1:03	0:59	1:05
시간압박	0:59	1:00	0:57	0:57	1:03	0:51	0:57	1:00	0:55

출처: 통계청, 201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연구자 직접 분석

2. 청년들의 시간결핍에 대한 토빗 회귀분석 결과

이제 청년들의 시간결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토빗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7〉은 19~34세 미혼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수면, 개인관리, 여가, 전체적인 시간압박 등 4가지 하위 종속변수에 대하여 중위수 90%(수면 7시간) 및 75%(수면 6시간) 기준을 각각 적용한 총 8개 회귀모델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8개 분석모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은 시간결핍의 정도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수면부족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남성은 개인관리시간의 결핍 정도가, 여성은 여가와 전체적인 시간압박 차원에서의 시간결핍을 더 크게 경험하였다. 다른 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하루 15~16분 정도 개인관리시간의 결핍을 보였으나,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가

시간의 결핍이 30분 정도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시간압박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하루 평균 10~20분 정도 더 결핍된 상태였다. 교육수준은 심각한 수면결핍과 전체적 시간압박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6시간 기준의 수면결핍 정도가 낮아진 반면, 전체적인 시간압박의 정도는 더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개인소득은 여가시간의 결핍과 관련이 있었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의 결핍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소득-여가 함수에서 나타나는 부적 관계가 확인된 셈이다. 가구유형의 경우 1인가구 청년이 다른 동거인이 있는 청년들보다 시간결핍을 더 심하게 경험한다는 증거는 개인관리시간(중위값 90%)에서만 미약하게 나타났다.

〈표 7〉 시간결핍에 관한 토빗 분석 결과 (전체 청년, n=3,951)

독립변수	수면		개인관리		여가		시간압박	
	중위 90%	중위 75%	중위 90%	중위 75%	중위 90%	중위 75%	중위 90%	중위 75%
성별	1.101877	4.210398	15.2581***	16.33587***	-30.78979***	-29.95768***	-11.65723**	-19.94308**
연령	-3.536357	-7.07804	-1.449738*	-1.135031	-2.239276	-2.192069	-1.33533	-2.217416
교육수준	-2.342712	-23.36369*	-0.4003875	0.0837694	0.25298	0.9035786	15.71591**	29.98536**
개인소득	-0.8211587	4.865175	0.7220229	0.407508	8.272802*	7.685368*	8.742316	9.117791
1인가구	0.8388252	4.925076	-2.682386*	-1.984076	3.684832	2.713208	0.5006466	-10.78539
유급노동	0.2006124***	0.1814123***	-0.0016447	-0.0106907*	0.2534106***	0.2421968***	0.5101044***	0.5794319***
가족	0.1747478***	0.33308***	0.0508811***	0.0545016***	0.1298508***	0.1145025***	0.37426***	0.4745603***
학습	0.228754***	0.2598636***	0.0133425***	0.0082461*	0.2517071***	0.2422481***	0.5407764***	0.6114618***
시간부족감	11.04291*	16.68987	1.354272	2.240248	9.835171**	5.942946	25.54356***	7.277711
삶만족도	-1.762505	5.568489	-2.721308**	-2.388185*	6.921248**	6.40741**	10.4299**	11.85942*
여가만족도	-1.62528	-11.60548	2.375378**	2.612701*	-7.31573***	-7.5317**	-2.613324	-9.953771*
log likelihood	-6067.6958	-2247.8764	-9918.4489	-5816.6583	-11058.997	-8636.2117	-7759.2578	-2218.4605
LR chi2	311.72***	144.14***	279.23***	190.18***	1261.86***	972.29***	1602.91***	708.83***
R2	0.0251	0.0311	0.0139	0.0161	0.0540	0.0533	0.0936	0.1378
Censored obs	3,127	3,686	2,120	3,002	2,203	2,638	2,800	3,653
Uncensored obs	824	265	1,831	949	1,748	1,313	1,151	298

*p<.05, **p<0.1, ***p<.001

출처: 통계청, 201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연구자 직접 분석

미혼청년들이 수면시간, 개인관리시간, 여가시간, 전체적인 시간압박의 차원에서 시간결핍을 강하게 경험하는 요인들로는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학습시간 등의 부담이었다. 유급노동시간이 길수록 수면, 여가, 전체 시간압박에서의 시간결핍 정도가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급노동 역시 개인관리를 포함한 모든 차원의 시간결핍을 더 심하게 경험하게 하는 변수였다. 특히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표본에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학습시간이 시간결핍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생활관련 인식과 시간결핍의 관계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다. 시간부족감은 수면, 여가, 시간압박에서 90% 기준의 시간결핍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시간결핍의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는 75% 기준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매우 심한 시간적 결핍을 경험하는 청년들

은 거의 예외 없이 시간부족감을 호소할 것이기(시간부족감의 변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 일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삶의 만족도는 수면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결핍 정도와 통계적 관련 성이 높은 변수였다.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개인관리시간의 결핍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가 및 시간압박 차원의 결핍을 더 강하게 경험한다는 결 과는 매우 흥미롭다. 인과관계의 방향을 바꾸어 보면, 청년들이 여가를 희생하고 전반적인 시간 압박에 쫓길 때 스스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인식하며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반면, 여가만족도와 여가시간의 결핍 정도 사이에는 부적 관계가 나타나 상식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8〉 시간결핍에 관한 토빗 분석 결과 (1인가구 청년, n=742)

독립변수	수면		개인관리		여가		시간압박	
	중위 90%	중위 75%	중위 90%	중위 75%	중위 90%	중위 75%	중위 90%	중위 75%
성별	12.82176	11.62392	15.58215***	17.8358***	-37.11968***	-34.51806***	-5.875046	7.598524
연령	-6.576376	-12.63343	-1.661136	-1.371461	-0.4004089	-1.07485	0.615933	-3.03504
교육수준	12.43917	-0.3739287	1.593611	-0.0360903	-6.989397	-3.352863	12.62932	35.1933
개인소득	3.530459	2.756207	-1.109247	-1.673134	5.287487	2.46193	6.028938	3.526953
유급노동	0.260466***	0.2987038***	0.0090796	0.0056358	0.187161***	0.1709427***	0.428565***	0.5271449***
가족	0.1789245	0.175832	0.0842242***	0.1054245***	0.0290646	-0.0325774	0.2826403*	0.3825954
학습	0.2734286***	0.3276124***	0.0148542	0.0085723	0.1912932***	0.1677679***	0.4652503***	0.5470521***
시간부족감	14.01181	20.35586	4.134621	6.854725*	8.18898	7.12458	20.31173	-5.224714
삶만족도	-3.471608	7.364995	-5.74**	-5.958084**	14.74938**	12.8621*	22.77221**	-1.030397
여가만족도	-4.293219	-17.30888	2.863802	2.951032	-22.1539***	-19.69377***	-19.28901**	-22.45971
log likelihood	-1218.4007	-482.00886	-1789.442	-1055.4036	-2145.2959	-1763.2159	-1318.1951	-322.88275
LR chi2	79.11***	50.87***	64.50***	53.19***	190.70***	159.38***	242.25***	101.69***
R2	0.0314	0.0501	0.0177	0.0246	0.0426	0.0432	0.0842	0.1361
Censored obs	575	683	410	566	404	470	549	700
Uncensored obs	167	59	332	176	338	272	193	42

*p<.05, **p<0.1, ***p<.001

출처: 통계청, 201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연구자 직접 분석

〈표 8〉은 혼자서 생활하는 1인가구 청년만을 대상으로 시간결핍에 대한 토빗 회귀분석을 수 행한 결과인데, 전반적인 경향성은 앞의 전체 청년 대상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여기 에서 나타난 뚜렷한 특징들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성별의 경우 개인관리와 여가시간의 결핍 정도에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고, 남성이 개인관리시간의 결핍, 여성이 여 가시간의 결핍을 더 심하게 경험하는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연령, 교 육수준, 개인소득 등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력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급노동과 학습시간의 부담은 수면, 여가, 시간압박 차원의 결핍 정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었으나 개인관 리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반면, 가사와 돌봄 등 무급노동시간이 커질수록 개인관리시간의 결핍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나머지 세 차원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삶의 만족과 여가만족도의 경우 〈표 7〉에 나타난 전체 청년에 대한 분석결과와 큰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9〉 시간결핍에 관한 토빗 분석 결과 (부모동거 청년, n=1,845)

독립변수		수면		개인관리		여가		시간압박	
		중위 90%	중위 75%	중위 90%	중위 75%	중위 90%	중위 75%	중위 90%	중위 75%
성별		-3.295996	3.076634	16.8522***	18.70891***	-29.80039***	-28.01645***	-10.30462	-17.23615*
연령		3.013005	-1.272491	-2.528248*	-2.155274	-6.212362	-5.038448	-6.081624	-1.213301
교육수준		-14.13253	-49.54285**	1.187551	2.904891	8.857135	7.626383	10.67952	10.12517
개인소득		0.9129408	17.5277	-0.1159448	-0.7102069	9.890823	6.716196	9.276783	1.333887
유급노동		0.1531403***	0.0875747*	-0.0051629	-0.0123089	0.2712755***	0.2564021***	0.5210921***	0.4079852***
가족		0.1118155	0.2676125*	0.0554207***	0.0605175**	0.1320954**	0.1408477**	0.3911286***	0.3805815***
학습		0.1810536***	0.1850929***	0.0079686	0.0045186	0.2710001***	0.2606902***	0.5386695***	0.4492853***
시간부족감		9.245317	26.97609	0.9774612	2.081233	11.70843**	10.14851*	20.48592**	3.299209
삶만족도		-5.246389	-3.949064	-3.290877**	-3.451263*	4.27808	3.515	-0.8976132	-0.6318034
여가만족도		2.613445	-0.5339422	2.671058*	4.253871**	-6.263855*	-4.949899	-1.602862	-7.355476
가구주 주요인	성별	-4.180395	-9.958906	-0.9492553	-1.795039	-7.575063	-7.694351	-18.52645**	-22.52523*
	연령	-7.045358	9.63664	3.089718*	4.292947*	8.746554*	9.814597*	19.73173***	20.55644**
	교육수준	5.13329	14.5283	2.582735*	2.175812	-2.476948	-3.458356	7.735505	12.18837
	가구원수	2.325795	7.114121	2.506339**	3.418521**	-1.784403	-1.56211	5.79135	9.713233
	가구소득	-0.3036052	-2.076406	-0.2222381	-0.4273152	2.439176	3.559927*	1.079532	3.116089
	개인소득	-3.486335	-1.959359	1.757475*	3.952523**	-4.150846	-5.645598*	-2.307189	-1.82364
log likelihood		-2795.8227	-911.78873	-4679.9558	-2691.5149	-5276.1031	-4228.0173	-3711.3894	-1138.766
LR chi2		115.94***	44.32**	189.51***	144.08***	744.65***	610.17***	867.35***	335.31***
R2		0.0203	0.0237	0.0198	0.0261	0.0659	0.0673	0.1046	0.1283
Censored obs		1,463	1,740	973	1,404	999	1,184	1,283	1,689
Uncensored obs		382	105	872	441	846	661	562	156

*p<.05, **p<0.1, ***p<.001

출처: 통계청, 201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연구자 직접 분석

마지막으로 〈표 9〉는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청년을 표본으로 한 분석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경향성은 앞의 전체 청년 대상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성별의 경우 개인관리시간의 결핍은 남성, 여가시간의 결핍은 여성에게 더 집중되어 있었고, 연령, 교육수준, 개인소득의 영향력은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나타났다. 또한 유급노동과 학습시간이 증가할수록 수면, 여가, 시간압박의 결핍정도가 커졌다. 1인가구 청년들에 대한 분석결과와는 달리, 무급노동시간이 많아질수록 개인관리시간 뿐만 아니라 수면, 여가, 시간압박 등 전체적인 시간결핍 정도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이 있거나 가사노동의 압박이 큰 경우 청년들의 전반적인 시간결핍 수준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삶의 만족과 시간결핍 정도 간에 나타나는 정적 관계 역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에게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전체적인 시간압박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함께 살며 직간접적인 삶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전반적인 시간압박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앞의 두 분석모형과 달리,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만을 분석대상으로 할 때 가구주 요인을 독

립변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일 때, 즉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동거하는 청년들의 전체적인 시간압박 수준이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함께 사는 미혼 청년의 시간결핍 정도는 개인관리, 여가, 시간압박 세 차원에서 더 커졌다. 나아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개인관리시간의 결핍정도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소득과 가구주 개인소득 변수의 경우 일관된 방향성을 논의하기 어려웠다.

V. 결론

본 연구는 2019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바탕으로 19~34세 미혼 청년들의 시간결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시간결핍의 차원은 수면, 개인관리, 여가, 그리고 이 셋을 합한 전체적인 시간압박으로 나누었고, 결핍의 기준을 표본 중위값의 75%와 90% 두 가지로 설정하여 토빗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청년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연구와 시간빈곤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결핍의 개념을 청년들의 상황에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9년에서 2019년 사이 청년들의 생활세계 변화를 개괄해 보면, 수면 및 개인유지 시간은 증가한 반면, 유급노동과 학습시간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수면시간 7시간 및 중위수 90% 기준을 적용할 때, 전체 청년 중 수면 결핍을 경험하는 청년의 비율은 20.9%, 개인관리시간은 46.3%, 여가시간은 44.2%였고 이 셋을 합한 전체적인 시간압박 경험자는 전체의 29%였다. 대체로 남성은 개인관리시간, 여성은 여가시간의 결핍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 시간결핍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면(수면 6시간 및 중위값의 75%) 시간결핍 경험자 비율은 상당히 낮아졌다. 셋째, 전체 미혼 청년에 대한 토빗 회귀분석 결과, 성별, 소득, 노동 및 학습시간, 생활시간 인식관련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남성은 개인관리시간, 여성은 여가시간의 결핍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전형적인 소득-여가 함수에서 나타나는 부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유급노동, 무급노동, 학습시간 등의 압박은 청년들의 시간결핍 수준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들이었다. 또한,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가 및 시간압박 차원의 결핍을 더 강하게 경험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넷째, 1인가구 청년과 부모동거 청년만을 추출하여 시간결핍 정도에 대한 토빗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반적인 경향성은 전체 청년에 대한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동거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이 있거나 가사노동의 압박이 큰 경우 청년들의 전반적인 시간결핍 수준이 커졌고, 삶의 만족과 시간결핍 정도 간에 나타나는 정적 관계 역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에게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일 때, 즉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동거하는 청년들의 전체적인 시간압박 수준이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함께 사는 미혼 청년의 시간결핍 정도는 개인관리, 여가, 시간압박 세 차원에서 더 커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미혼 청년 중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시간결핍을 경험하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첫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여성의 시간결핍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시간결핍이 여성에게 집중된 것과 비슷한 결과인데, 우리 사회의 젠더구조가 여성의 전반적인 시간결핍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시간지원 정책, 특히 문화여가 차원의 지원을 논의할 때 여성의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성평등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둘째, 유급노동, 무급노동, 학습 등 다른 필수적 활동에 대한 시간부담이 클 때, 청년들의 시간결핍의 정도가 커졌다. 청년들이 취업준비, 학업,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힘겹게 열심히 살아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인데,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시간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특히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현금지원은 과도한 유급노동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결핍 수준을 완화해 줄 수 있다.

셋째, 소득이 높은 청년들의 여가시간 결핍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여가시간을 희생하는 경향이 청년세대에서도 나타남을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어서 특정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는 결과라 보기는 어렵다.

넷째,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이라 해도 가족을 돌보거나 부양해야 할 경우 시간결핍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고, 오히려 1인가구 청년들보다 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청년 돌봄 문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젊은 나이에 짊어져야 할 부양부담이 크다면 이를 경감시켜줄 사회적 안전망의 작동이 필요하다. 과도한 부양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들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시간결핍의 경험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문겸 · 김정오 · 김형균 · 이동일 · 이일래 · 인태정 · 김희재 · 일상성, 일상생활연구회 · 박재환 · 고영삼 · 김상우 · 오재환 · 정승안 · 윤명희 · 허미영, 2008,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 한울.
- 김서현, 2019,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저소득층 여자 대학생들의 시간 체험」, 『한국사회복지학』, 71(1): 149-177.
- 김숙영, 2018, 「우리나라 성인의 수면시간 관련 요인」,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9(1): 153-165.
- 김유빈 · 강동우 · 오선정 · 유동훈 · 이지은, 2018, 『청년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진아 · 이십열, 2019, 「한국 성인의 수면시간에 따른 건강태도 및 식생활: 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19(4): 237-247.
- 김진옥, 2008, 「일하는 어머니들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복지정책』 35: 197-220.
- 김진옥 · 고은주, 2015, 「시간압박, 누가 얼마나 경험하는가?: 한국 기혼부부의 수면, 개인관리, 여가시간 결핍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42(2): 135-161.
- 노혜진, 2013, 「재량시간 discretionary time을 중심으로 본 빈곤여성의 삶의 질」, 『사회복지연구』, 44(1): 61-87.
- 노혜진, 2019, 「시간빈곤과 이중빈곤의 실태와 영향요인 - 다양한 시간빈곤 개념 적용 -」, 『사회복지정책』, 46(4): 65-90.
- 노혜진 · 박나리, 2022, 「20년간 한국사회의 노동시간 변화: 노동시간, 시간빈곤, 시간불평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8(3): 291-326.
- 박수빈, 2022,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한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 사용 유형과 관계제에 관한 연구: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상훈 · 한송이, 2015, 「대학생의 수업 외 활동이 능동적 · 협동적 학습 및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3(2): 323-356.
- 변금진 · 김기현, 201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사회복지정책』, 46(2): 257-285.
- 서지원 · 양진운, 2017, 「청년 1인가구의 성별 생활시간 사용구조와 주관적 시간빈곤: 부부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55(5): 451-463.
- 손문금, 2003, 「맞벌이 주부의 이중부담과 여가시간의 성격」, 『통계청 통계연구 가을』, 8(2): 23-58.
- 송혜림 · 강은주 · 김민주, 2018,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 연구 - 성별 · 취업여부에 따른 식사와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2): 45-63.
- 신영민, 2021, 「시간빈곤인의 노동시간 특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1(2): 37-68.
- 오혜은, 2017, 「시간과 소득의 동시 빈곤에 관한 연구 - 남녀 가구주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44(1): 161-185.
- 우민희 · 이명진 · 최선헌, 2015, 「청년세대 일인가구의 여가활동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청년세대 다인가구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6(1): 201-231.
- 이경희 · 김근주, 2018, 『시간빈곤(Time-poor)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수현, 2022, 「한국 청년세대 일과 여가의 균형과 행복: 여가시간의 양과 분포, 여가 자기결정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용관, 2016,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대학생 자녀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논총』, 32(1): 159-190.
- 이진숙 · 이윤석, 2014, 「비혼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여성과 남성의 교제활동 시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7(4): 1-24.
- 이희조 · 이명진, 2022, 「한국청년세대의 젠더에 대한 의식과 정치이념이 능력주의에 미치는 영향: 성별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1): 1-28.
- 정은희 · 주은선, 2020, 「청년의 여가시간과 교제시간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청년 역할유형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6): 623-639.
- 차승은, 2010, 「남녀의 시간압박인식 차이와 관련요인 탐색」, 『한국인구학』, 33(1): 27-49.
- Bardasi, E. and Wodon, Q., 2006, “Measuring Time Poverty and Analyzing its Determinants: concepts and application to Guinea” , *MPRA Paper*, 11082: 75-95.
- Bittman, M. and Wajcman, J., 2000, “The Rush Hour: The Character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 *Social Forces*, 79(1): 165-189.
- Bittman, M., 2004, “Parenting and employment” , in N. Folbre & M. Bittman(Eds.), *Family time: The social organization of time*, London: Routledge.
- Burchardt, T., 2008, “Time and Income Poverty” , *CASE Reports 57*, London: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 Goodin, R. E., Rice, J. M., Bittman, M. and Saunders, P., 2005, “The Time-Pressure Illusion: Discretionary Time vs. Free Time” , *Social Indicators Research*, 73(1): 43-70.
- Goodin R. E., Rice, J. M., Parpo, A. and Eriksson, L., 2008, *Discretionary Time: A New Measure of Freed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chschild, A., 1989, *The Second Shift: Working Parents and the Revolution at Home*, New York: Viking Penguin.
- Vickery, C., 1977, “The Time-Poor: A New Look at Poverty.” , *Journal of Human Resources*, 12(1): 27-48.
- 한국어기초사전, 2023, <https://krdict.korean.go.kr>, (검색일:2023.03.01.)
- National Sleep Foundation, 2015, 「How Much Sleep Do We Really Need?」, <https://www.sleepfoundation.org/how-sleep-works/how-much-sleep-do-we-really-need>, (검색일, 2015.03.26.)

Time Deficit of Young People, Who Experience How Much?

Kim, Jinwook
(Sogang University)
Park, Subin
(The Incheon Institute)

Subject Social Welfare

Key words Time Deficit, Time Poverty, Young People, Time Use Survey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ime deficit experienced by the young generation. To this end, the factors affecting the time deficit of unmarried young people aged 19 to 34 were analyzed using the 2019 Time Use Survey data. Sleep, personal care, and leisure time were set as sub-dimensions of time deprivation, and the criteria for time deficit were 75% and 90% of the sample median. Tobit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ecause the left truncated problem appeared in the distribution of the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egree of time deprivation of young women was more serious, and when the time burden for other essential activities such as paid work, unpaid work, and study was high, the degree of time deprivation of young adults increased. Life-related cognitive variables such as life satisfaction and lack of time were also variables that had a significant effect. In the case of young people living with their parent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household head-related variables was also confirmed. These results raise the need for youth policies that can alleviate the time deficit of young people.

접 수 일 : 2023년 4월 9일
심사완료일 : 2023년 5월 1일
게재확정일 : 2023년 5월 1일